

율법의 옛 틀에서 오직 복음의 새 틀로

- 복음으로 여는 로마서 -

창세기22:1-2, 로마서1:17

정운돈 목사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메시지를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이다.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교회력을 보면서 ‘종교개혁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하게 하셨구나. 완벽하게 계획하셨구나.’ 붙잡게 되었다.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더디오라는 제자를 통해 대신 기록한 편지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가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24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매개체인 줄 믿기를 바란다. 이것을 붙잡고 왜 문제를 주셨는지 질문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문제도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면 더디오라는 제자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 편지를 로마로 전달한 사람은 겐그레아 출신의 여제자 비비아라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소식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로 심각한 것이다. 부흥을 하고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여제자 비비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한 것이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그를 로마교회에 천거하면서 비비아는 여러 성도와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비아는 루디아처럼 여성산업인, 여성종직자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종직자를 붙여서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하면 이러한 만남을 주실 줄을 믿는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통 임직식을 할 때 일꾼을 뽑는다고 말한다. 장로직은 명예직, 교회에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뽑은 것이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하인, 고용인을 의미하고 교회에서는 집사(deacon, 일을 잡는 자, 일은 맡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는 일반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로마까지 전달하는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이다. 일반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 식주인의 역할을 했는데 말씀을 로마까지 전달할 수 있는 여집사, 여종직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로마서는 신학서인데, 읽을수록 어렵다. 어떤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어떤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중에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가는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육간에 점과 흠과 티가 없이 보전되기를 바란다. 신분은 믿음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빼앗을 존재는 아무도 없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지난주에 아모소서 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매를 들어서 고쳐서라도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사도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로마로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향해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로마가 복음화 되어야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미국에 RU대학을 설립했다. 우리 교단의 최종적인 훈련은 RU 박사과정이다. 로마서의 비비아를 보라. 로마에 가서 로마서를 전달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누구에게 물어봤겠는가? 비비아에게 물어봤을 것이다. 독해를 여성 종직자 비비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도 깊어야하겠지만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 신학적인 깊이도 있어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직자대학원 공부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엘리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 시대에 로마 복음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또한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종교를 믿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리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율법밖에 몰랐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잘 몰랐다. 그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이다. 아브라함도 의인이 되었던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 믿음을 믿으니까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다. 유대인에게 준 율법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아브라함은 십계명, 율법이 없었을 때 행위로 지켜서 믿는가. 어떤 양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낸 것이 로마서인 것이다. 그리고 이방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방종교는 세상적이며 율법했다. 예수 믿고도 과거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 그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찬양을 들었는데 눈물이 났다고 한다. 완전히 변화되기를 축원한다. 세상의 것이 전혀 나에게 즐겁지 않을 정도가 되는 시간표가 온다. 말씀이 풀숭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시간표가 온다.

1. 복음을 받은 로마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아직 가지고 있었던 옛 틀이 있었다. 이것을 깨야 한다.

(1)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의 틀이다. 이 틀은 지금의 무신론이고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진화론은 이론이지 법칙이 아니다. 램프들이 하나님 없는 학문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많은 복음가진 과학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발해서 질서가 생기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2)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모두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그들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3) 이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26-27절을 보면 그 시대에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인간이 된다. 질서와 기준이 없어진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말씀하신다. 여자가 남자의 역할,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복음이 없으면 점점 이렇게 된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 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동 성애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남자들의 동성에 행위는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 는 것이다. 틀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동성에 행위가 더 위험하다. 에 이즈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동성에 행위의 결과가 너무 처 참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릇됨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 가 그들을 비난하고 적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해야 한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할 것이 아니라 복 음을 전달해야 한다.

(4) 또한 로마서 1장 28-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 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8절이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 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 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로마서 1장 30절이다. '비방하 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 는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 아 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을 바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셨는가?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주셨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은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 신다. 그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5)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멍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 에 필요 없구나.'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는 서기관, 의인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지켜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원 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주리고 목이 마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복음적인 율법이 더 높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6)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육 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서 6장 12-13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2. 다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새 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우리들이 알아야 할 새 틀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을 받았다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 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 하고 있다. 로마서 8장 35절-39절 말씀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 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이랴'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기를 바란다. 로마서 8장 38-39절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 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 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새 틀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

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 니라.' 즉,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3) 로마서 3장 23-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 틀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24절 말씀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 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4)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세우 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 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로마서 16장의 사람이 되도록 도전해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한다. 넘어지면 회개하며 다 시 도전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0-21절의 말씀이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 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면 그렇게 교만하게 되지 않는 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5)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구원의 새 틀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2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론을 내리겠다. 로마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미래전도의 도구 6가지를 목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복음과 전도의 영원한 Leverage,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힘과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령기 때문에 믿음의 지렛대가 필요한 것이다.

2. 두 번째는 Vessel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로마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 즉 로마복음화를 위해 도전하는 그릇이 되어 야 한다. 문제는 여러분의 그릇이 작아서 온다.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 다.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으로 일회일비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다. 작은 마음을 세계 복음화하는 마음으로 넓히기를 바란다.

3. 세 번째는 Transmission이다.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 로마서를 전달한 두 인물이 있다. 그 사람들은 로마서를 대필한 디디오와 로마서를 전달한 비비아이다. 우리 또한 전도자들과 원니스되어 땅 끝까지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4. 네 번째는 Nobody이다.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 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이 번에 전도캠프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오직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란다.

5. 다섯 번째는 Platform이다. 오직 믿음을 증거 한 로마서는 세계사를 변 화시킨 영적인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다. 이 로마서 때문에 로마는 결국 세 계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화되었다. 영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6. 마지막은 Outsourcing이다. 이 로마서는 전해지는 곳마다 로마서 16장 의 인물들과 같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다.

이번 한 주간에는 로마서를 다시 목상하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절대체자들로 세워지길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미 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바 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오력을 주계 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